



## 시청앞에 쌍사자탑 불 밝혀

‘소통과 화합’ 두손 모아 발원

불기2455년 봉축등이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을 발원하며 서울광장에서 점등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봉축위는 5월 3일 서울 시청 광장에서 속리산 범주사 쌍사자 석등을 형상화한 대형 등을 켜는 점등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조계종 포교원장 혜승 스님, 봉축위원회 집행위원장 영담 스님, 오세훈 서울시장, 문광부 조창희 총무실장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점등에 앞서 천안환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한편, 용산 참사 故 김남훈 경사 아버지 김권찬 씨, 외국인노동자 바하두르씨, 나눔의 집 강일출 할머니, 승가원 김가영 어린이 등 사회 각 계층 구성원과 주

한인도대사관 라자세카르 공사와 중국, 브라질, 이탈리아 등 외교 관계자가 참석해 ‘화합의 등’의 의미를 더했다. 자승 스님은 기원문에서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며 계종과 이념, 지역 갈등의 장벽을 넘어 진정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함께하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민족의 대결과 갈등이 심화되지 않고 평화로운 통일의 길로 나아가 갈 수 있도록 불자 모두가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 석탄일에 시민행사 광주사암련 성명 광주시 강행 방침

광주시가 부처님오신날인 5월 21일 광주시민의 날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지역불교계가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박광태는 21일 부처님오신날에 대규모의 광주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해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오, 이하 사암연합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민의 행사를 앞날 또는 전날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사암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불교인의 가장 큰 명절에 ‘시민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광주광역시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 1년에 52번 있는 ‘일요일’ 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시의회에서 결의된 내용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계종 사회국장 묘장 스님은 “광주불교사암연합회의 뜻을 존중하지만, 종단 차원의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 지역 사암연합회에서 대응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이상연 기자

## 이 수석이 복권 제의 김영국씨 밝혀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에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안상수 원내대표의 프라자호텔 회동 내용을 알려준 김영국 전 조계종 특보가 청와대 외압설을 재차 확인했다. 김영국 전 특보는 5월 6일 서울 지방경찰청에서 이동관 홍보수석이 명진 스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참고인으로 조사 받은 후 한겨레 신문,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자회견 전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부터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대가로 사면복권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특보의 증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소강상태를 맞고 있는 봉은사 사태가 청와대 외압설을 시작으로 다시 쟁점화될 전망이다. 조동섭 기자

## 다람살라의 5월 5일

# “인간 정신은 강인하고 존귀해요”

리차드 무어 크로스파이어 활동가 다람살라 방문해 특강

한국의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다. 미국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이 ‘한국의 어린이날’이라는 제목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축전을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 보았다. 미국 교육 자본 시장에 있어서 한국의 어린이는 확실한 질 좋은 씨앗이라는 점이다. 실제 한국인 부모의 자녀를 향한 교육 열기는 이스라엘 부모를 능가하는 세계적 수준이다. 월수입의 30% 이상을 사교육비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의 가정교육 시스템이 이를 증명한다.



빈민층 어린이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리차드 무어의 강연을 듣고 있는 다람살라의 어린이들.

인도 다람살라의 티베트 망명정부에는 특별히 어린이날이 없는 것 같다. 10월 두 번째 주가 어린이를 위한 날인 것 같다고 티베트 친구가 말했지만, 티베트 달력에는 표기돼 있지 않다. 티베트에서 망명한 15세 이전의 어린이는 다람살라의 TVC (Tibetan Vill of Children) 학교에 거주하며 12학년의 교육과정을 거친다. 현재 이곳에는 5개 학교에 3500여 명의 학생이 생활하고 있다.

Moore)와 그의 가족을 초대했다. 이날 TVC 강당에는 망명정부 산하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천여 명의 내외빈이 48세의 아일랜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자리했다. “나는 10대의 어린 나이에 영국 군인의 고부 총알에 의해 두 눈을 잃었습니다. 이후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분노를 연민으로 바꾸는 힘을 배워갔습니다.”

본의 아니게 잃은 시력으로 더 넓은 세상을 깊게 바라보게 됐다고 말하는 리차드는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남아메리카 등 세계 각국의 빈민층 어린이를 지원하는 ‘크로스파이어(Crossfire)’라는 국제기구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건강한 나무의 시작은 뿌리에 있습니다. 티베트는 현재 망명정부라는 현실적 비극에 놓여 있지만, 훌륭한 불교문화와 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스승이라는 튼튼한 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 어린이들의 미래를 승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역경을 충분히 극복할 만큼 강인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리차드의 아버지 리암(Liam)은 1972년 그의 한 쪽 눈을 아들에게 기증했다. 그리고 37년 후 당시 아버지의 물음은 리차드의 자서전 <Can I Give Him My Eyes>의 제목이 됐다.

달라이 라마는 그의 불을 맞대어 부리며 “오늘의 만남이 티베트 어린이들에게 바른 미래를 설계하는데 영감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오늘날 만연한 인간의 분노와 적개심으로 이미 우리 모두는 두 눈을 잃은 것과 다르지 않다. 진정한 웃음을 지닌 당신의 미소 속에서 아이들의 평온을 보았다. 당신과 같은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노벨평화상 수상자”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인도 다람살라·가연속 객원기자

## 학생 종교인권 제도개선 서약

종자연, 교육감 후보 광노현·박명기 참석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 외 3인)은 5월 7일 서울 장충동 만해NGO센터에서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를 초청, 학생 종교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서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서약식에는 6월 2일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힌 예비후보 중 광노현 방승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명기 서울교육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두 예비후보는 △학생들이 종교

강요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학교와 교사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 실시 전 학생(학부모)에게 고지, 대체과목을 개설토록 지도 감독 △종교행사를 강요해 학생의 종교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노력하겠다는 3개항의 서약서에 서명해 박광서 공동대표에게 전달했다. 이상연 기자

- ▶14 선지식-허정 스님
- ▶4 인터뷰-정선 스님
- ▶9 현장-JTS 길벗 명동 거리모금

## 농인향당 www.nihwa.com

순수원향을 지향하는 고품격 향의 명가

농인향당은 자가점착의 법제기술을 보유한 초유의 회사입니다. 당사의 전제품은 기도나 연봉시에 일체의 호흡을 해치지 않는 순수원향으로 연기의 양을 조절하기 위하여 재나 탄산칼슘 성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침향은 다른 나라에 로열티를 주고 수입하여 판매하는 침향과는 다른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향입니다.

농인향당에서는 불가의 최고가치인 복장물용 침향과 침향선향, 침향염주 등 침향제품을 메트남 현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 프리미엄 침향 제품군

농인침향수	침향적정	침향
150,000 80,000 50,000	300,000 150,000 80,000	600,000 300,000 150,000 80,000

프리미엄 침향에 인도 마이소르산 최상급 백단을 더하여 향의 품격을 한껏 올린 새로운 향

프리미엄 침향에 불가의 오단향인 진자단향을 더한 명상과 기도를 위한 향의 수작

농인향당 향 법제기술의 종아, 프리미엄 자연산 순수 침향100%로 만든 침향제품의 명작

농인향당에서는 정확한 등급의 침향복장물을 공급합니다.

☎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96번지 (02)3663-6777

직영매장 : (02)730-6888(조계사맛은편), 인사점(통인가게입구)

爐香觀空法圖 -金弘道

